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 높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이다. 전도는 왜 하는가?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보편적이고 모범적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저출산, 무종교인 증가, 가난한 성도 증가 등 교인 감소의 삼중고를 맞닥뜨리고 있다.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 2023)'에 따르면, 교인의 전도 활동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전도 활동 만족도는 최근 10년 사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그칠 수는 없다.

지난주 예정통합 총회에서 소속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인식과 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꼽은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목회에서 '전도'의 중요성은 '예배'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도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1% 정도였다. 반면, 전도 관련 설교 횟수가 많고, 새신자부를 운영하고 새신자교육이 있는 등 담임목사가 전도에 열의를 보일수록 그 교회의 전도 성과가 높고 새신자 정착률도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도 실태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예장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417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방법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11월 8일 ~ 2024년 3월 22일
조사 주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 : 예장통합 총회• 연구·분석 :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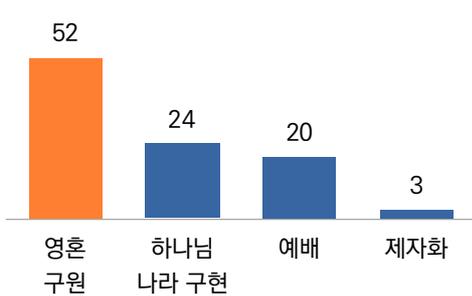
01

[전도의 중요성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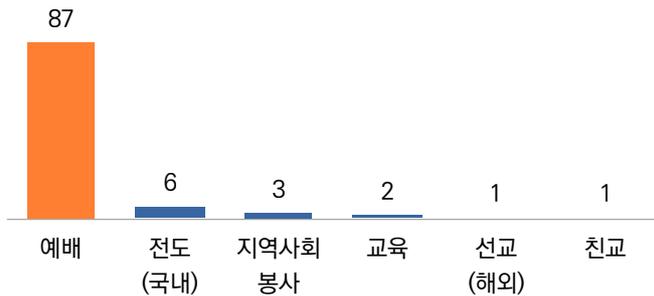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영혼 구원' 압도적으로 높아

- 담임목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 '영혼 구원'이란 응답이 절반 이상(5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현' 24%, '예배' 20% 등의 순이었다.
-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1순위)으로는 담임목사 대다수(87%)가 '예배'를 꼽았고, 이어 '전도(국내)' 6%, '지역사회 봉사' 3%, '교육' 2%, 등의 순이었다. 앞서 교회의 사명으로서 '영혼 구원'을 압도적으로 꼽은 것과 비교하면 '전도'를 중요하다 꼽은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친 점이 대비된다.

[그림]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담임목사, %)



[그림]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담임목사, 1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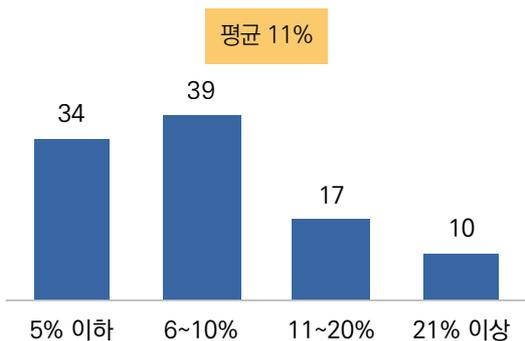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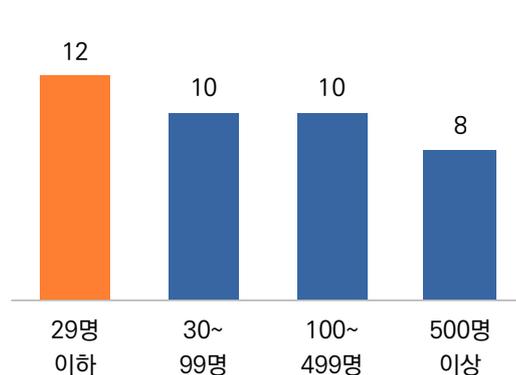
전도에 할당하는 예산, 전체 예산 중 11%!

- 그렇다면 교회 전체 예산 중 전도 관련 예산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교회 전체 예산 중 전도 예산 비중은 평균 11%였고,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소형교회가 대형교회 대비 보다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전체 예산 중 전도 예산이 21%이상인 교회는 10%에 그쳤다.

[그림] 전체 예산 대비 전도 예산 비중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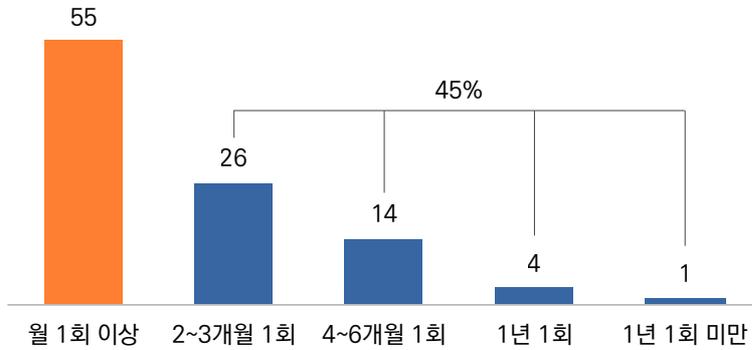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전도 예산 비중 (담임목사, 평균, %)



목회자 절반 가까이, 설교 시 월 1회도 전도 언급하지 않아!

-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묻은 결과, '월 1회 이상' 언급하는 비율이 55%였고, 다음으로 '2~3개월 1회' 26%, '4~6개월 1회' 14% 등의 순으로, 절반 가까이(45%)는 설교 시 전도를 월 1회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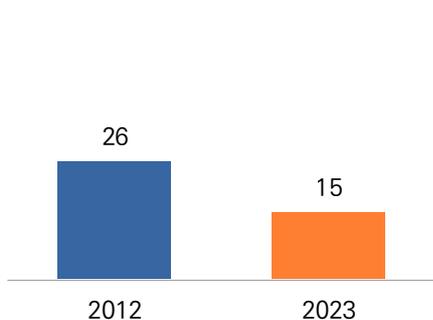
[그림] 설교 시 전도 언급 빈도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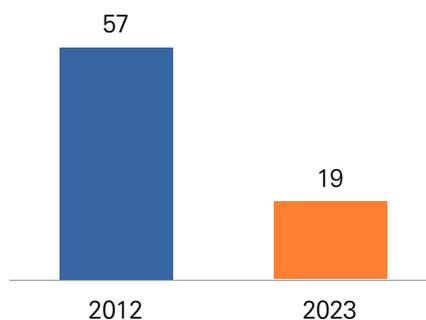
전도 활동 만족도, 10년 사이 1/3 수준으로 감소

- 한국교회에서 전도 활동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 대상으로 '전도하여 출석시킨 경험'의 10여 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6%에서 2023년 15%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한 '시무교회의 전도 활동 만족도' 역시 2012년 57%에서 2023년 19%로 10년 사이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도하여 교회 출석시킨 경험 (교회 출석자, %)



[그림] 시무교회의 '체계적인 전도 활동' 만족도 (담임목사,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2023.04. (전국 담임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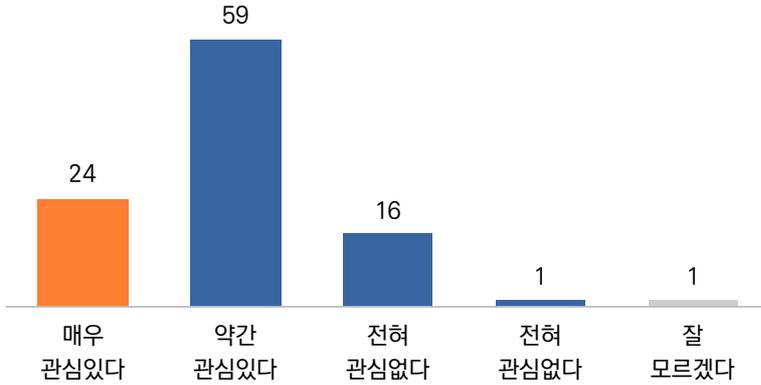
02

[전도 교육/훈련과 실행]

교인 중 전도에 대해 적극 관심자, 24%

- 전도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도를 담임목사들에게 물었더니 ‘매우 관심있다’는 적극적인 응답은 24%로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교회의 전도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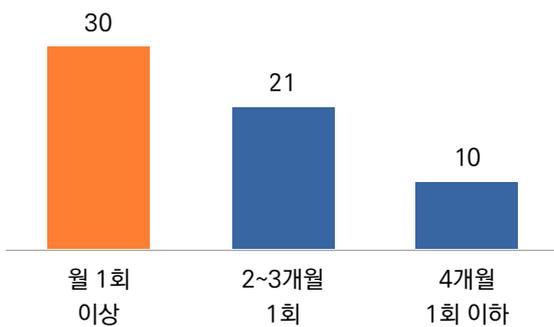
[그림] 전도에 대한 교인 관심도 (담임목사, %)



목회자 설교 시 전도 언급 빈도 높을수록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높아

- 교인들이 전도에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의 설교 시 전도 언급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월 1회 이상’ 설교 시 전도를 언급하는 경우 ‘매우 관심있다’ 응답률이 30%인데 반해 ‘4개월 1회 이하’는 1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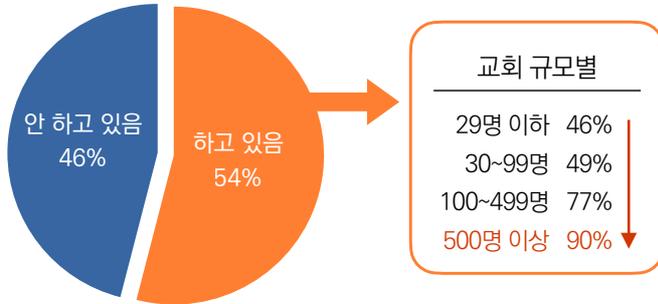
[그림] 설교 중 전도 언급 빈도별 교인의 전도 ‘매우 관심있다’ 비율 (담임목사, %)



절반 이상 교회에서 전도 교육/훈련 하고 있어

- 목회자에게 시무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지를 묻은 결과, '하고 있음'이 54%로 '하지 않고 있음'(46%)보다는 약간 더 높았다.
- 전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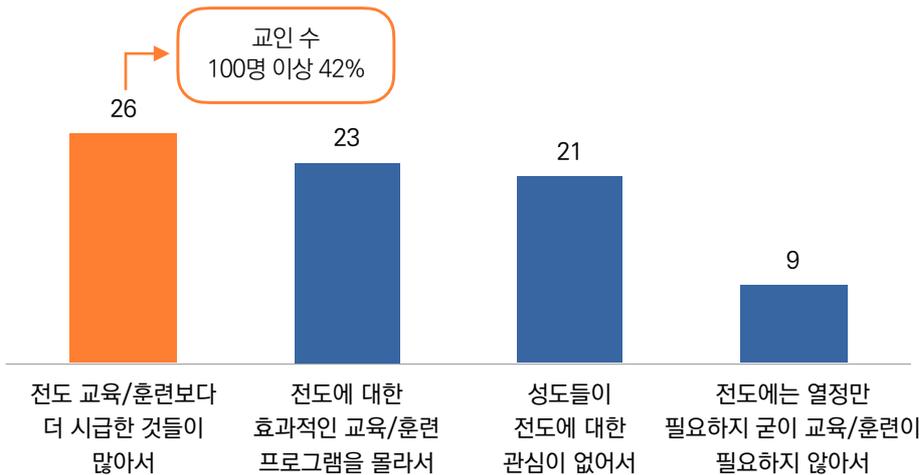
[그림] 전도 교육/훈련 실시 여부 (담임목사)



전도 교육하지 않은 이유, '우선순위에 밀려'!

- 앞서 '전도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목회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전도 교육/훈련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가 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전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몰라서' 23%,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 교육/훈련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는 교인 수 100명 이상 교회에서 4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란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전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모르고,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는 교회의 노력과 관심 혹은 여력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목회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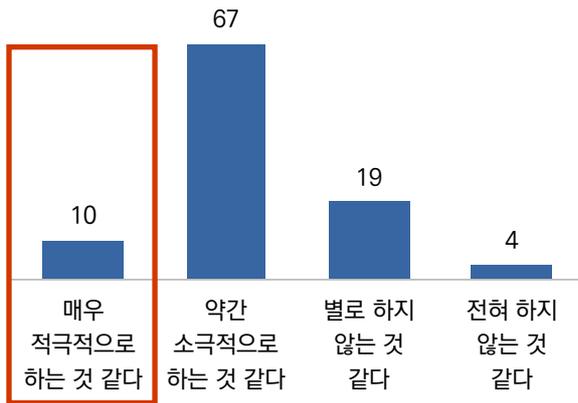
[그림] 전도 교육/훈련 실시하지 않은 이유 (전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하지 않은 담임목사,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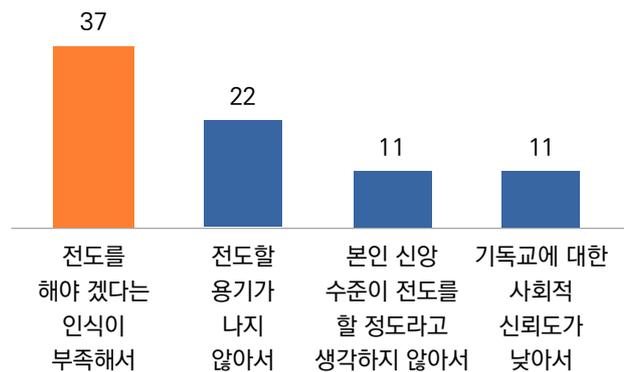
교인 중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 10%

- 담임목사들에게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4명 중 3명(77%) 정도가 교인들이 ‘매우+약간’ 전도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10%로 교인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왜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전도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37%)’란 이유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22%)’, ‘본인 신앙 수준이 전도를 할 정도라 생각하지 않아서(11%)’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서(11%)’ 등의 순이었다.

[그림] 교인들의 전도 실행 여부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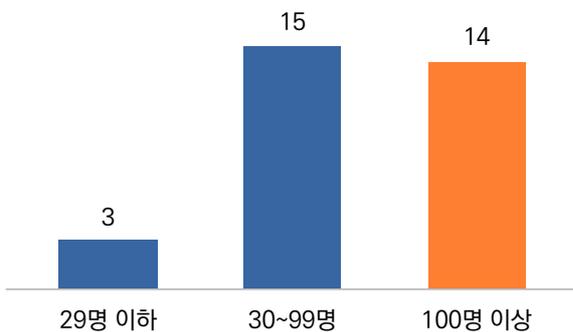
[그림]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담임목사, 상위 4위, %)



29명 이하 소형 교회가 상대적으로 전도 참여율 낮아!

- 교인 중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비율을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면 29명 이하 초소형 교회의 전도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앞에서 소형 교회의 전도 예산 비중이 대형 교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교인들의 전도 실행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교회 규모별 교인들의 전도 실행 (담임목사, ‘적극적으로 전도 하는 것 같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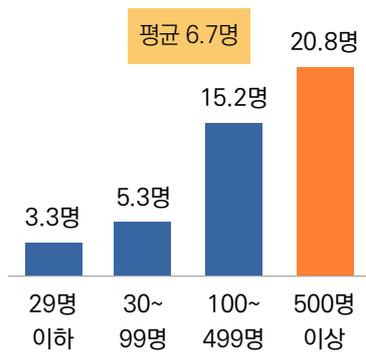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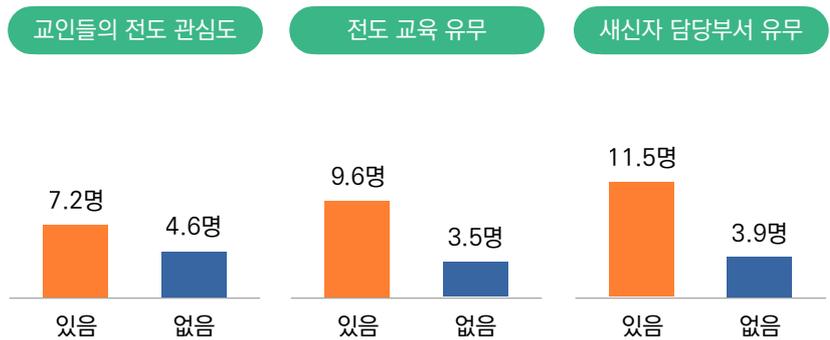
[전도 그 이후] 목회자의 전도 열정, 전도 성과에 큰 영향 미쳐!

- 이번에는 실제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몇 명인지 물었다. 2022년 기준으로 평균 6.7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한 자 수를 교회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가 높을수록, '전도 교육과 새신자 담당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일수록 전도로 교회 출석한자 수가 훨씬 많았다.
- 즉 교인과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전도 성과가 높은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 한 자 수 (담임목사, 2022년 기준, 교회 규모별)



[그림] 교회 특성별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한 자 수 (담임목사, 2022년 기준)



전도에 의해 교회 출석한 자, 10명 중 7명은 수평이동!

- 이들 전도에 의해 교회 출석한 자 중 초신자의 비율은 29%로 10명 중 3명이 '신앙 경험이 없는 자'였고, 반대로 71%는 수평이동자였다.
- 수평이동자 비율은 500명 이상 교회가 79%로 중대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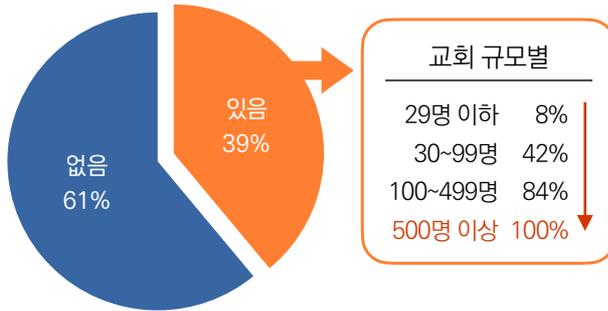
[그림] 전도로 교회 출석한 사람 유형 (2022년 기준 전도로 교회 출석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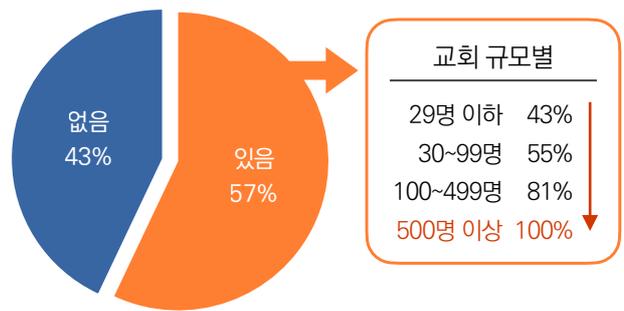
새신자 담당부서와 교육 여부, 소형교회는 제대로 갖추지 못해!

- 새신자 담당 부서 유무를 묻은 결과, '새신자 담당 부서가 있는' 교회는 10곳 중 4곳가량(39%)이었고, 새신자 교육 유무에 대해서는 57%가 '있다'고 응답했다.
- 새신자 담당 부서와 교육 여부는 교회 규모별 큰 격차를 보였는데 특히 '새신자 담당부서가 있다'는 응답률은 29명 이하 소형교회(8%)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100~499명' 84%, '500명 이상'은 100%로 규모가 클수록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신자 교육' 역시 교회 규모가 클수록 '있음'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새신자 담당부서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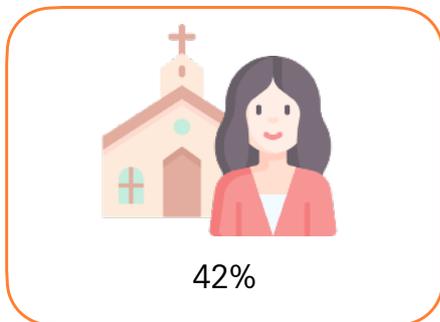
[그림] 새신자 교육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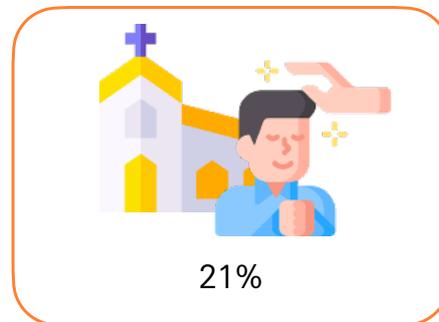
새신자 정착률 42%, 새신자 중 세례 비율 21%

- 담임목사들에게 새신자의 교회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은 결과 새신자 정착률은 42%로 나타났다. 새신자 중 세례까지 받은 사람의 비율은 21%로 새신자 정착률의 절반 정도였다.

[그림] 새신자* 정착률 (담임목사)



[그림] 새신자* 중 세례받은 비율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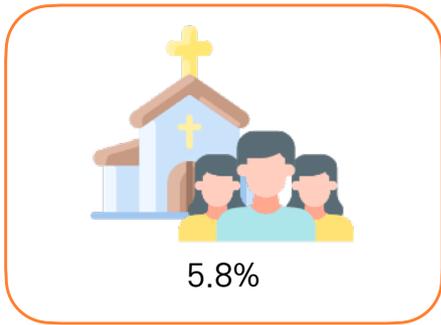


*권유가 아닌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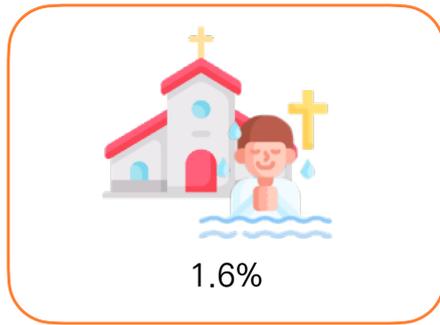
교회 출석자 중 전도 통해 교회오는 새신자, 연간 5.8%! 교회 출석자 중 연간 세례자 비율 1.6%!

-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연간 어느 정도 될까? 이를 분석한 결과 교회 출석자 대비 연간 5.8%가 새로 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에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 중 세례를 받는 비율이 21%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전체 교인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교회 출석자 중 연간 세례받은 자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 우리가 있지만 세례받은 자를 영혼 구원자로 간주한다면 한국교회에 그만큼 영혼 구원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연간 전도를 통해 교회출석한 사람 비율*
(교회 출석자 대비, 담임목사, 2022년 기준)



[그림] 연간 출석교인 대비 새신자 세례받는 비율**
(담임목사, 2022년 기준)



*전도 방문자 평균/교인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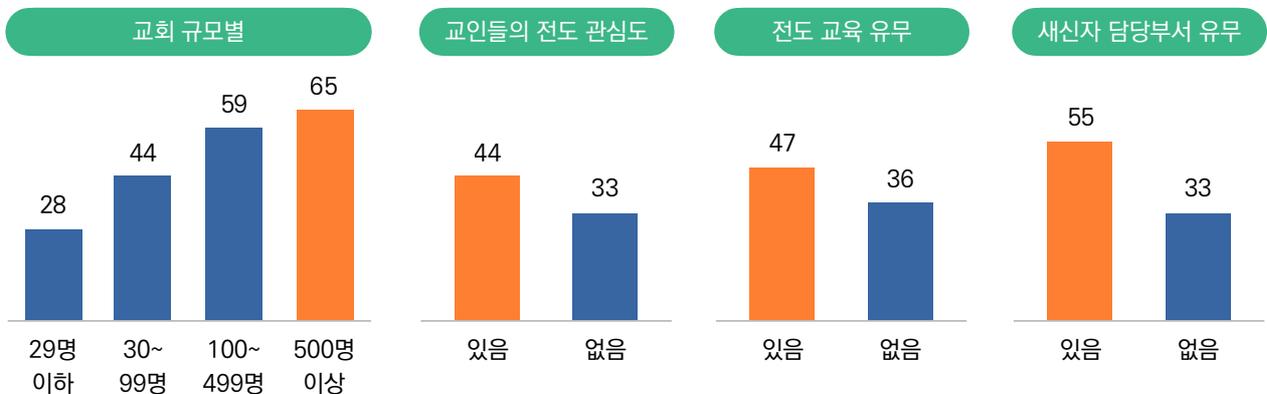
** $(\text{출석교인 대비 전도받아 출석한 사람 비율}) \times (\text{새신자 세례 비율}) = (\text{새신자 중 전도받은 신자 비율})$

Note) 본 조사는 새신자 세례 비율을 질문함에 있어 전도 받은 자 이외 본인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까지 포함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전도 받아 교회 출석한 사람 이외에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까지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전도받은 신자의 비율은 '한국교회탐구센터,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 2021.10.'를 참조하여 '새신자 중 전도받은 신자 비율' 75%를 적용함)

전도 교육/새신자 담당 부서있는 교회에서 새신자 정착률 높아!

- 이번에는 교회 규모,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유무, 전도 교육 유무 등에 따른 새신자 정착률을 살펴보았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새신자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 '전도 교육과 새신자 담당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새신자 정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 특성별 새신자 정착률 (담임목사, %)



이번호 요약

1. 목회자,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 하지만 한국교회 전도 실행은 미약!

-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5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하지만 전도 할당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설교 시 월 1회도 전도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전도를 통해 교회 오늘 새신자 비율은 전체 출석교인의 5.8%, 새신자의 세례받은 비율은 출석교인의 1.6%에 불과했다.

2. 목회자의 전도 열정과 실행력이 교인의 전도 관심과 열매로 이어질 수 있어!

- 목회자가 전도 교육을 안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밀려',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교인이 전도 안 하는 이유는 '전도 인식 부족', '용기 부족'이 가장 많았다.
- 목회자가 설교 시 전도 강조할수록 교인의 전도 관심도 증가했으며, 교인의 전도 관심도가 높거나 전도 교육이 있고, 새신자 담당부서를 운용할수록 전도의 열매와 새신자 정착률이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전도는 단지 프로그램 아닌 교회의 본질” \(기독일보\)](#)
- ▶ [\[서적\]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정재영 외, IVP\)](#)
- ▶ [\[영상\] 선교적 교회와 마을목회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한국일 교수\)](#)

관련 성경 구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목회 적용점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자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목회자의 관심과 교인의 실행이 사명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사 결과 목회자가 전도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실행력, 나아가 전도 열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목회자의 식어가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전도 교육을 정례화시켜 모든 교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내 전도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전도가 왜 중요한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전도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에 관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교회 내 적극적인 전도 활동자는 대략 10%로 추정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해 전도의 최일선에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교회 전도 예산 평균이 10%라는 말을 듣고 어느 목회자는 내년부터 당장 전도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도 예산을 지금보다 증액시키는 것도 개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 교회 내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소그룹이 전도의 거점이 되도록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